
碩士學位請求論文

北韓의 丁茶山 研究에 관한 考察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金 龍 贊

1994年 2月

北韓의 丁茶山 研究에 관한 考察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龍 贊



金龍贊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安 相 範
高 性 俊
康 根 亨



〈抄 錄〉

北韓의 丁茶山 研究에 관한 考察

金 龍 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北韓에서의 丁茶山 研究를 북한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정다산 연구가 정치 이념의 변화나 김일성 개인의 교시에 의해 시대별로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해방후 부터 1950년 말까지는 유물사관에 의한 평가였다. 이 시기의 정다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사상가로 평가 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인식의 기준인 계급성, 인민성, 진보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실학 사상가로써 봉건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적 하고 이상적인 사회 모형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의 저작물들에서는, 북한에 새로운 정치 이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곧 주체사상이다. 이전까지의 유물사관에 의한 맑스-레닌식의 평가가 서서히 주체사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다산에 대한 평가는 그의 양반적, 유교적,시대적 제한성을 강조 하면서 결국 정다산의 관념론적인 한계를 벗어 날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민대중의 결집력을 강화 시키지 못해 사회변혁의 실천성이 약할수 밖에 없어 그가 제시한 '이상사회'는 조선의 생시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 사상이 정립후인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다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미되는 현상을 볼수 있다.

즉, 지나치게 한계성과 관념적인 요소만을 지적 함으로서 생기는 정다산의 이룩한 업적 가치도 모두 무시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수 있다. 정다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변증적인 논리로 연구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즉, 50년대의 제1기 평가를 정(正),60-70년대의 제2기 평가를 반(反),80년대 이후의 제3기 평가를 합(合)으로 연결해 볼수 있다.

특히 제3기의 연구는 오늘날의 개방화,개혁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진입하려는 명분 축적용으로 지양(止揚)된 정(正)의 모습으로 평가 될것이다.

결국 북한의 정다산 대한 연구 평가는 정치이념이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해석됨으로써 그 일관성을 잃고 있다.



目 次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3
II. 北韓의 歷史 解析의 原理	5
1. 政治理念의 變化와 歷史 敘述	5
2. 歷史 解析의 原理	8
(1) 階級性의 原理	8
(2) 人民性의 原理	10
(3) 進歩性의 原理	11
III. 丁茶山 研究의 現況과 內容	13
1. 研究 現況	13
2. 研究 內容	19
(1) 第1期(1950년대)	19
가. 哲學 思想에 관한 研究	19
나. 社會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22
다. 宗教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24
(2) 第2期(1960~70년대)	25
가. 哲學 思想에 관한 研究	25
나. 社會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27
다. 宗教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29

(3) 第3期(1980년대 이후)	30
가. 哲學 思想에 관한 研究	30
나. 社會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32
다. 宗教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33
IV. 丁茶山에 대한 評價의 變化	35
1. 唯物史觀에 의한 評價	35
2. 主體史觀에 의한 評價	40
3. 肯定的 要素 再評價	42
4. 丁茶山 研究에 나타난 特徵과 問題點	45
V. 結 論	49
參考文獻	52
Abstract	55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녀 왔다.

단순한 지적 탐구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50년 가까운 分斷史를 극복하려는 민족的 요구에 적극 대응 하려는 실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北韓에 대한 知的 接近은 순수한 學問的 동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政策的 차원에서 시도되거나 연구된 것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연구는 軍士, 外交, 政治, 이데올로기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침위협에 경각심을 주거나 북한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의 體制 優越性을 입증 하려는 연구들이 많았다. 물론 이를 통해서 北韓 社會 全般에 대한 理解가 어느정도 가능해 진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特殊한 상황 때문에 북한 연구가 法的 制度的으로 많은 制約을 받아 왔고, 實證的 資料 접근도 어려웠다.

다행히, 1980년대 후반부터 國內外的 變化에 副應하여 北韓 原典의 출간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虛와 實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閉鎖的 연구와 特定 分野에서의 偏狹된 視覺은 쏟아지는 원전을 잘못 해석 함으로써 또다른 문제를 惹起 시킬 危險이 있다.

특히, 北韓의 歷史書들에 대한 一貫性없는 기록들을 접하면서 당혹 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本 研究는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의 歷史 研究 分野 중 北韓은 우리 歷史 人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사실 北韓의 學問은 북한에서 '社會主義 社會'를 건설 하는 過程에서 動員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革命的 正當性을 확보 하고 大衆을 동원 하는 데 유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 歷史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歷史人物 研究도 黨의 政策및 政治 理念의 變化와 대단히 밀접한 關係를 맺으면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歷史人物을 評價할 때는 북한의 歷史學 研究가 政治權力과 밀착되어 있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過程에서 歷史人物 研究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북한의 歷史學은 政治理念의 變化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¹⁾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歷史人物에 관한 저작물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이에 대한 學問的 探究가 부분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북한의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의 역사 시기구분에 관한 내용이나, 근 현대사분야에 관한 연구,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한 업적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인물에 대한 북한의 評價에 관한 것은 극히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연구의 또다른 방법이 될것이다.

그래서 本 論文은 北韓의 歷史 人物중 丁茶山에 대한 評價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연구된 역사 인물중에서 정다산을 선택한 이유는 實學관련 연구물들을 비교적 쉽게 접할수 있었고, 북한에서의 정다산평가는 곧 실학에 대한 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封建시대에서 資本主義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학의 대표자로서 정다산의 위치는 얼마만큼 客觀的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다산의 어떤 分野가 주로 研究되고 있는지? 다산에 대한 연구나 평가가 정권 수립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왜 자주 바뀌는지? 등을 고찰 하고자 한다.

1) 안병우·도진순(1990), <북한의 한국사 인식Ⅱ>(서울:한길사), pp.11-12

즉, 정치이념으로써의 主體思想이 역사인물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주체사상이 북한에서의 모든 분야에 관여되고 있음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물론 本 研究가 南北韓間의 丁茶山 研究의 水準을 比較하거나, 丁茶山에 대한 北韓의 歷史的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북한 歷史學界에서 출판된 丁茶山 관련 저서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왜 자주 바뀌는지를 살핌으로써 北韓 歷史人物의 평가가 지니는 政治的 目的을 끌어 내하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本 論文은 북한에서 出版된 丁茶山 관련 서적을 土臺로 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들을 2차자료로 한 文獻研究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의 政治, 軍士, 이데올로기 등의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어왔지만 역사부분 특히 북한의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거의 없다.

사학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내용을 부족한 資料와 짧은 識見으로 論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 생각 하지만 북한에서 출판되는 丁茶山 관련 연구물들을 접하면서 일관성없는 敘述이 발견됨으로써 그 原因이나 根據를 찾아 보고자 시작했다.

이러한 理由로 本 論文이 지니는 限界를 몇가지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서 出版된 저작물을 1차자료로 설정하는 문제이다.

즉, 북한에서 의 저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內容 變形없이 構成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1차자료로 삼았다.

둘째, 정다산의 역사적 業績이나 評價가 社會政治的接近 經濟的接近 등 각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다. 그런데 몇편의 저작물만 갖고 다산에 대한 북한의 연구 전부로 推定한다는 무리를 갖고 있다.

셋째, 實學이나 정다산에 대한 南韓 사학계의 比較를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비교해서 어느쪽이 옳고 그름을 判別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학자 전부를 고찰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정다산에 限定시켰다.

위와같은 한계를 認定 하면서 內容 構成을 다음과 같이한다.

1장에서는 問題提起를 통하여 연구의 動機를 밝혔고, 2장에서는 北韓의 歷史 解析의 原理를 階級性, 人民性, 進歩性으로 關連시켜 보았다. 특히 정치이념의 변화와 歷史敍述은 어떤 關係를 갖고 있는지? 歷史 인식이 어떻게 變해 왔는지? 등을 고찰 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은 정다산연구의 主要著作을 통하여 研究現況과 內容이 수록되었다. 연구내용은 茶山의 철학사상, 사회정치사상, 종교 교육사상으로 나누었고 이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4장은 정다산에 대한 北韓의 평가 변화를 唯物史觀에 의한 평가기, 主體史觀에 의한 평가기, 긍정적 요소 재평가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이를 근거로 나타난 丁茶山研究의 主要特徵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를 要約 하면서 主體사상과 역사인물 연구의 關連성을 끌어 내면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II.北韓의 歷史 解析의 原理

1. 政治理念의 變化와 歷史 敘述

북한의 역사 서술은 政治理念의 변화와 政治圈의 對內外的 環境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북한의 역사 연구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전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48. 10. 2일 내각결정으로 '조선 역사 편찬 위원회'²⁾가 설치되면서부터 역사서술의 기본 법칙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것'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 서술'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따라 <조선민족 해방 투쟁사(1949)>, <역사의 제문제(1952)>, <유적조사보고(1953)>, <조선통사(1956)> 등이 출판되기도 했다.³⁾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歷史研究는 정치이념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다. 즉,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모든분야가 이 주체사상의 틀로 分析, 評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주체사상의 出現背景과 體系化 과정을 간단히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주체'라는 용어가 처음나온 것은 1955. 12. 28일 당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 할 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나오고 있다. 그 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위원장:백남운.

연구위원:김광진,홍명희,이기형,박시형,김석형,이효성 등으로 구성됨.

3) 조동걸의 3인(1988), "북한에서는 우리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서울:역사문제 연구소), pp.6-10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
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
하는 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조선 혁명을 알
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⁴⁾

위의 연설에서처럼 북한은 ‘思想에서의 主體’를 강조하기 시작 했다. 그 이
유는 53년 휴전이후의 經濟的 廢墟를 복구하고, 김일성의 支配權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1953년 스탈린 死亡과 이에 따른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格下運動, 中蘇
理念葛藤, 소련의 북한에 대한 內政干涉등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자기 중심체제에 반대하는자들을 修正主義者, 教條主義者,
分派主義者, 事大主義者등으로 몰아서 숙청해 나갔다.

이과정에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는 思想的 무기로써 ‘주체’
를 강조 했던 것이다. 그래서 1955. 12월 ‘思想에서의 主體’를 강조한후 1956년
‘經濟에서의 自立’ 1957년에 ‘政治에서의 自主’ 1962년에 ‘國防에서의 自衛’
1966년에 ‘外交에서의 自主’를 主唱하여 점차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
는 기존인식에서 “가장정확한 맑스-레닌주의” 라는 것으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김일성 個人崇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본격
화 된다. 1968년 8월 개최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정확
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 사상”으로 규정했고, 1969년의 사회과학자 토론회에
서는 “주체사상만이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4) 동아일보사(1989.1.), <원자료로본 “북한”>, p.145.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승화되고 있다.⁵⁾

이러한 주체사상이 체계화작업은 1970년대로 계속 이어지는데 1972년부터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⁶⁾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차 普遍的 이론으로 굳혀가고 있다. 1980년대에와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의 입장에서 세분화 되고, 이에 기초한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朝鮮勞動黨 創建40周年을 기념하여 1985년에 발행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전10권)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역사해석의 기준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즉, 주체사상이 강조되면서 김일성 개인의 역사활동이 부각되고 김일성敎示가 역사해석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들어 1950년대의 時期區分 論爭을 할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蘇聯의 基準을 適用했다. 그래서 역사 시기구분도 맑스-레닌주의의 唯物論的 法則을 적용하여 韓國의 現代史 구분을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로 規定했었다.⁷⁾

그러나 1950년후반의 김일성 執權鬭爭과 60-70년대의 主體思想의 體系化되면서 부터는 소위 人民이 歷史의 主人으로서, 歷史發展의 擔當者로서 役割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그래서 人民大衆의 위대한 首領인 김일성의 革命活動이 활발했던 1920년대를 現代史의 출발로 보고 있다. 1926년 ‘타도 帝國主義 同盟’⁸⁾을 結成하면서부터 抗日革命이 主體思想의 기치아래 自主性의 原則에서 進行되는 새로운 出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⁹⁾

5) 김영수(1993.11.),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성과 변화 -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p.6

6) 위의 논문, p.6에서 재인용

7) 안병우·도진순, 앞의 책, pp.13-16

8)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1988), <조선근대혁명운동사>(서울:한마당), pp.229-234. 김일성의 20-30년대 활동이 본격화되고 특히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여 항일운동의 중심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政權 樹立후부터 정치적 변화에 따라 <歷史>가 자주 재해석되어왔다. 즉, 북한은 <歷史學>이 단순히 학문의 기능을 넘어 支配의 正當化를 合理化시키는 데 한 수단이 되어왔고 통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役割을 해왔다.

북한에서는 역사의 주인이 人民大衆이듯이 역사학에서도 인민대중을 主人으로 놓고 歷史學者들은 歷史學이란 분야에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服務하는 사람으로 위치지워진다. 抗日運動 과정에서는 民族的 自負心을키워 抗日鬪爭의 正當性을, 1950년대의 社會主義 과정에서는 각 階級을 勞動階級化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온사회의 主體 思想化 한다고 하여 思想統一의 범위가 全 社會로 까지 확대 된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見解의 차이, 學問的 差異의 土臺나 基盤을 하나씩 없애 나간다.¹⁰⁾

따라서 <역사인물>도 <역사>의 한 範疇에 포함시켜 연구되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얼마나 階級的要素를 다루고 있느냐? 인민들의 利益을 얼마나 잘 代辯했느냐? 그리고 그 主張이나 思想이 얼마만큼의 進步的 變化를 추구하는 데 기여했느냐? 등이 그 人物에 대한 研究基準으로 삼게 된다.

즉, 북한의 보는 歷史 認識의 원리는 階級性, 人民性, 進步性에 맞추어 보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歷史 解析의 原理

(1) 階級性의 原理

北韓은 역사해석을 계급적 입장에서 파악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社會主義 理論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즉 모든 역사는 階級간의 鬪爭속에서 부로조아

9) 안병우·도진순, 앞의 책, pp.42-44.

10) 조동걸의 3인(1988), “북한에서는 우리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제간3호, 역사문제 연구소, pp.15-16

계급을 타도하여 勝利하는 시대가 곧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것을 계급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革命意識을 키워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강조하는 階級的 관점은 自然과 社會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계급적 처지와 이익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즉, “사람들이 革命的 世界觀이 서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분석 판단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있다.”¹¹⁾고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階級性은 모든 世界觀의 기초이며 기본구성 부분이다. 계급적 입장에 따라 科學性과 非科學性, 進歩性과 反動이 규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고와 행동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적 관점이 바로 설때 계급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階級鬭爭은 근로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온갖 사회적 질곡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사회발전을 추동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 계급적 解放을 이룩해 가는 과정이 계급투쟁의 과정이다.

노예사회에서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 봉건사회에서 봉건 지주를 반대하는 농노 농민들의 투쟁, 資本主義社會에서 資本家 階級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인류 사회는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도 이런 계급적 기준에의하여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문도 그런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56-58년에 나온 <조선통사>상 중 하의 내용도 5단계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 역사를 계급 투쟁과 對外抗爭史로 파악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학자는 “역사의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社會的 進歩를

11) 사회 과학원 철학 연구소(1985), <철학 사전>(서울:도서출판 힘), p.38

12) 위의 책, p.39.

위한 투쟁의 鼓舞者"여야 하기 때문에 역사학 연구의 성과도 어떤 사정과 이론에 의하여 指導 되는지를 것을 알수 있다.¹³⁾

(2) 人民性의 原理

北韓에서는 역사인식의 원리로서 人民性, 혹은 人民 大衆性을 강조한다.

북한의 철학사전에 '인민대중'이라 함은 "은갓 예측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 하는 데 이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¹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主體라는 것이다. 즉, 인민대중이 사회적 운동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있으며 역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인민대중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해야될 役割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¹⁵⁾

- 1) 人民大衆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 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結合되어야 한다.
- 2) 人類 歷史는 인민대중의 自主性을 위한 鬭爭의 역사이다.
- 3) 社會 歷史的 운동은 인민대중의 創造的 運動이다.
- 4) 思想意識은 사람들의 모든 行動을 規制 調節한다.

이상에서 볼수 있듯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인데, 그런 주체가 되려면 '大衆과 指導'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고리가 있어야 한다. 역사과정에서 社會主義 革命은 이런 대중의 結集力을 키우지 못하면 곧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과 黨의 思想에 의해 지도된 대중만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에서 밝힌 지도원칙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인 역량인 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해야 어떤문제도 성과적으로

13) 극동문제 연구소(1980), <북한전서>, p.632.

1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85), <철학사전>(서울: 도서출판 힘), p.545.

15) 김정배(1989),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서울: 울유 문화사), pp.20-21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社會歷史의 主體로써 인민대중'을 강조 하여 겉으로는 民衆史觀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당과 수령에 절대 服從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여 革命運動에서 결정적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革命에 積極적으로 참여하여 온갖 難關과 試鍊을 이겨 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는 것이다.¹⁶⁾

(3) 進歩性的의 原理

北韓에서의 進歩性이라는 것은 支配와 隸屬을 반대하고 사회적 변혁과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보적 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그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 반영되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보적 사상은 사회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민대중은 진보적 사상에 의하여 지도 될 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될수 있습니다.”¹⁷⁾

진보적 사상은 人民大衆에게 자기의 사회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를 계단계 하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 줌으로써 사회 역사를 발전 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고무 추동 한다.

인민대중은 진보적 사상에 의하여 지도 될때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가 된다

16) 김갑철·고성준(1988), <주체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문우사, pp.166-167.

17) 사회 과학원 철학 연구소(1985), <철학사전>(도서출판 힘, 1988), p.700

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 人物에 연구도 얼마만큼 進步的 性格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사상도 관념론적 견지에 머물러 있으면 실현성이 없다. 진보적 사상이라고 하여 사회역사발전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며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 주는가에 따라 그역할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현실생활과 계급 투쟁을 떠나서 改良의 방법으로 社會主義를 건설하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 예는 空想的 社會主義者들이 경우에서 알수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말에 출현 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자본주의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사상조류로 발생한 진보적 사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관념론적 견지에 머물렀으며 사회발전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현실생활과 계급투쟁을 떠나서 改良의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공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의 지배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시 할수 없었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진보성은 오직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 인물도 얼마만큼의 社會變革의 요구와 그 실천에 노력했는가가 중요한 認識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역사를 계급성, 인민성, 진보성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중에서 누가 이를 강조했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사회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역사학>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다.

그럼 이런기준을 갖고 실제로 정다산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내용을 다음장에서 보고자 한다.

18) 위의 책, p.700.

Ⅲ. 丁茶山 研究의 現況과 內容

1. 研究의 現況

北韓의 정다산에 대한 연구는 實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같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解放後 정다산에 대한 研究는 主體思想의 定立期를 前後로 해서 나누어 지고 있다. 즉, 歷史 연구가 시작된 해방後 부터 주체사상 정립 이전인 1950년대의 정다산 연구, 主體 사상의 등장과 정립기인 1960-70년대의 연구, 그리고 그 이후인 1980년대 이후의 연구로 나누어 볼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1기, 제2기, 제3기라고 규정하여 전개하고 있다.

第1期의 저작물은 <실학파와 정다산(최익한,1955)>, <조선철학사, 상(정진석의 2인,1960)>, <탄생200주년기념논문집(과학원 철학연구소,1962)> 등이 있다 <실학파와 정다산>에서는 실학연구의 선행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하편에 정다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최익한¹⁹⁾이 월북 후 그 동안의 <동아일보>에 연재 했던 글을 모아 보충하여 쓴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주로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상황, 다산의 철학, 경제, 정치, 종교 등 실학사상의 대성자로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책 말미에는 다산의 일대기가 소상히 기록되어 다산에 대한 행적을 알기쉽게 밝히고 있다.

丁茶山 연구의 主要現況을 저작물의 目次를 引用하여 圖表로 보면 <표1>과 같다.

19) 최익한은 1897년 울진군의 유학가문에서 태어나 일본식민시대와 해방초기에 사회주의 운동가로써 활약한바있고, 1948년 월북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바도 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것은 본 저서의 송찬섭 "최익한과 다산연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표1>20)

<p>상편</p>	<p>실학파의 사적 발전 머리말 제1장: '실학'의 숨어있 개념 제2장: 실학파의 선행자들 제3장: '실학' 발전의 사회적 환경-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조선-에 대한 몇가지 고찰 제4장: 유반계, 이성호 일파의 실학 사상 제5장: 홍담헌, 박연암, 박초정 일파의 실학사상</p>
<p>하편</p>	<p>실학의 대성자 정다산에 대한 연구 머리말 1. 다산의 사상가적 견해에 대한 사회적 개관 제1장: 정다산의 약전(略傳) 제2장: 다산의 실학적 연원 및 경로에 대한 고찰 제3장: 실학파의-천주교와 서양과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제4장: 실학파의 발전 및 수난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다산의 철학적 재건해 제5장: 과학적 신견해와 일체 미신 타파론 제6장: 유학(儒學) 개혁 사상과 실용주의 제7장: 인식과 비판에 있어서의 유물론적 제요소 3. 다산의 정치 경제 사상 제8장: 다산의 정치사상 제9장: 다산의 경제사상 제10장: 다산의 <전론(田論)> 7장 역술(譯述) 4. 다산의 실학에 대한 간단한 재론</p>
<p>부록: 1. 다산 연보 2. 다산의 일사(逸事)와 일화 3. 다산의 저서 총목 4. 종두술, 우두술과 정다산 5. 정다산의 이상사회와 그역사적 제약성</p>	

<조선철학사(상)>에서는 정다산을 實學思想家の 한 인물의 역할로써 기록하고 있다. 즉, 실학이 등장한 후 선행 실학자 들의 연구가 이익, 홍대용, 박제가 등으로 오면서 발전했고 정다산에 와서는 실학사상이 완성 되었다는 것이다.

정다산의 연구비중을 다음 表를 보면 알 수 있다

20) 최익한(1955), <실학파와 정다산>(서울:청년사), pp.3-6.

<표2> 21)

6. 실학사상
가. 실학사상의 사회 역사적 조건
나. 실학의 선구자들
1) 이수광
2) 한백겸
3) 김육
4) 유형원
다 실학사상의 발전
1) 이익
2) 북학론
ㄱ.홍대용 ㄴ.박지원 ㄷ.박제가
3)정약용
4)실학사상의 특징

제1기의 정약용에 대한 연구의 絶頂은 <탄생기 논문집>이라고 볼수 있다.

이 책 서문에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 유산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 시킬데 대한 당과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전체인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18세기말 조선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백과전서적 대학자이며 작가인 열렬한 애국자 정약용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의 사상리론분야에서 이룩한 업적들을 연구소개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이시기의 정다산 연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집은 다산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정다산²²⁾이 이룩한 여러 업적들을 사학자,교육학자,물리학자등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의 연구논문

21) 정진석·정성철·김창원 공저(1960), <조선철학사(상)>(서울:이성과 현실) pp.4-5.

22) 정다산은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 초부면(지금의 양주군 와부면 동내리)에서 정재원의 4남으로 탄생. 부친 정씨는 남인계의 士族이며 모친 윤씨는 윤선도의 후손인 윤두서의 손녀임.

모음집이다. 이 논문집에서 다산의 여러 연구활동을 수록하고 있지만 다산연구의 대가라 할수 있는 최익한의 연구물은 빠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보면 다음 表와 같다.

<표3>23)

저	자	글 의 제 목
역사학 박사	김석형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
교수	정진석	다산 정약용의 철학 사상
과학원후보원사	김광진	다산 정약용의 사회 경제사상
물리학 박사	리용태	다산정약용의 자연과학 사상
부교수문학박사	신구현	다산 정약용의 창작과 문학적 견해
과학원 원사	박시형	다산 정약용의 역사관
교육학 학사	박형성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
부록		다산 정약용의 주요 저작 연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산의 개인 연구는 제2기에 오면서 실학파속의 한 인물로 그 비중이 약해 지고 있다. 즉 실학의 연구과정에서 다산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第2期の 대표적인 丁茶山 研究는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5장으로 분류하여 서술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실학사상발생 발전의 사회 역사적 전제, 2장은 실학사상발전의 사상이론적 전제, 그리고 3장은 초기의 실학자로서 류형원 이익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중기의 실학자로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 5장은 말기의 실학자

23) 과학원 철학연구소(1962), <탄생 200주년기념 논문집>(서울:푸른숲), p.9

로서 이규경, 최한기의 사상이 연구되고 있다. 정다산과 관련된 주요 연구 現況을 보면 表와 같다.

<표4>24)

제4장: 중기의 철학
제5절: 정약용의 철학 및 사회 정치사상
1. 정약용의 실학사상 형성과 그 발전의 두 단계
2. 정약용의 실학적 학풍과 자연과학사상
3. 정약용의 철학사상
1) 자연관 2) 변증법 3) 인식론
4) 종교, 미신에 관한 견해
5) 튼리 도덕적 견해
4. 정약용의 사회 정치사상
1) 사회 역사관
2) 사회 정치 <개혁>사상
ㄱ.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의 <개혁>사상
ㄴ. 토지 제도 <개혁>사상
ㄷ. <려전제>로 표현된 <리상사회>의 본질
ㄹ. 조세, 군포, 환자 제도의 <개혁>사상
ㅁ. 상업 및 화폐유통에 대한 견해
ㅂ. 기술 발전에 관한 견해
ㅅ. 국방 사상

第3期에 해당하는 1980년대 이후의 정다산에 대한 연구는 최봉익의 <조선 철학사 개요>와 정성철의 <조선 철학사 II>등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시기의 다산 연구도 조선 철학사나 실학파의 연구분야중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다산의 사상중 특히 철학부분이 상세히 연구되어 인민성, 자주성, 진보성을 강조한 인물로 다루어 지고 있다.

24) 정성철(1974),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서울:한마당), pp.5-6.

이는 곧 주체사상에서 강조되는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 등이 다산연구에 언급 함으로서 주체사상을 다산의 개혁사상과 상호 관련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철학사 개요>는 그 머리말에서 “주체의 철학사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대 노예사회로 부터 근세에 이르는 기간의 철학적 사유의 발전 역사와 그 합법칙성을 체계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다산에 대한 연구의 위치를 보면 表와 같다.

<표5>25)

제3편:봉건사회의 분해기 철학

제1장:실학과 철학의 출현과 자본주의적 사상의 발생

제1절:초기 실학파의 대표자 리익의 철학 사상

제2절:중기 실학파의 철학사상

1)홍대용의 철학 사상

2)박지원의 철학 사상

3)박제가의 철학 사상

제3절:후기 실학파의 철학 사상

1)정약용의 철학 사상

2)리규경의 철학 사상

3)최한기의 철학 사상

정성철이 쓴 <조선 철학사Ⅱ>는 이조 후기의 철학을 소개 하면서 다산을 주자 성리학의 관념철학을 반대하고 등장한 진보적 실학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즉 다산연구를 단순히 후기의 실학자가 아닌 진보적 사상가로 연구되고 있

25) 최봉익(1986), <조선 철학사 개요>(서울:한마당), pp.3-4.
저자 최봉익은 최익한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다.

다. 이 책에 나타난 정다산 연구의 位置를 보면 表와 같다

<표6>26)

제5장:진보적 사상조류로서의 실학사상의 발전
제1절:홍대용의 철학 사상
제2절:박지원의 철학사상
제3절:박제가의 철학 사상
제4절:정약용의 철학 사상
제5절:이규경의 철학 사상
제6절:최한기의 철학사상

2. 研究의 內容

丁茶山에 대한 研究의 內容을 앞에서 분류한 1, 2, 3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정다산 연구의 내용은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 社會政治 思想에 관한 研究, 그리고 敎育 宗教思想에 관한 研究로 한정시켰다.

(1) 第1期(1950년대)

가.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

이 時期의 다산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儒學 改革家로서의 學問的 特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儒學에 대한 새로운 견해로 儒學을 改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6) 정성철(1987), <조선철학사Ⅱ>(서울:이성과 현실), p.3.

그의 實用主義的 척도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라는 회랍 소피스트 사상을 방불한 듯하나 그의 이론적 솔직성은 케변적 논리를 극복하고 동시에 현재 소위 프래그마티즘이 美國의 獨占資本家의 이익에 복무하는 반동철학적 척도 와도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구태여 말한다면 다산의 유교 경전 해석은 16세기 이래 프로테스탄트의 성경해석과 近世初期 科學者들의 中世 스킨라 哲學에 대한 배척적 태도를 연상케 하는것이라고 한다.²⁷⁾

또한 다산은 “性理學의 研究 對象이었던 인간의 性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人間本性을 論한다는것이 무의미 하다”라고 북한에서는 연구되고 있다.

“정다산은 물(物)에 대해서도 그 종류에 따라 성이 동일치 않은 것을 지적하여 인물성혼동론을 반박 하였으며 또, 본능성은 동물에 있어서 그것이 기질지성이 아니고 본능지성이라고 지적 하여 송유의 본연, 기질양성의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논란 하였다.”²⁸⁾는 것이다.

특히 정다산의 哲學思想을 다른 實學 思想家들과의 共通點을 통하여 그 特徵을 설명하고 있다.²⁹⁾

첫째, 유교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다. 實學派 학자들은 이조 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 黨爭의 理論的 도구로서 公理公談으로 타락한 朱子學을 반대하면서 實事求是의 구호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약용은 “오늘의 성리학을 하는 자는 리(理)를 말하고 기(氣)를 말하고 성(性)을 말하고 정(情)을 말하고 체(體)를 말하고 용(用)을 말하고 본연(本然)이니, 기질(氣質)이니, 리발(理發)이니, 기발(氣發)이니, 이발(已發)이니, 미발(未發)이니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라느니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것이라느니 세 줄기 다섯 가지 천 갈래 만 갈래로 이리 나누고 저리 쪼개고 서로 지껄이고 깊이 생각하고 기운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스스로 천하의 고묘한 것은 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리 찌르고 저리 건드리고 꼬리를

27) 최익한, 앞의 책, p.273.

28) 앞의 책, p.295.

29) 정진석의 2인, 앞의 책, pp.48-50.

잡고 머리를 당기고 각기 한 기치를 세우고 각기 한 보루를 쌓아 한평생에 그 송사가 결정될 수 없고 대대로 그 원한이 풀리지 아니하며 찬성하는 자는 존경하고 반대하는 자는 무시하며 같은 자는 추대되고 다른 자는 공격하여 스스로 근거하는 바가 극히 다르다 하나 그 얼마나 실지 사정에 어두운가?"라 하여 공리공담을 일삼는 것을 매우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實學思想家들이 우리나라의 自然科學 遺産들을 충분히 연구 체득한 기초 위에서 당시 소개된 구라파의 先進的 自然과학과 기술지식을 대담히 연구 도입한 것이다. 정약용은 선진과학과 기술을 도입할 데 대한 자기의 염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연경이 한양으로 부터 3천여리인데 사신들의 왕복거래가 계속 되었다.
그런데 리용후생을 위한 물건을 얻어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은 없으니 어찌 사람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입히자는 생각이 이다지도 없는가?”

셋째, 實學思想家들이 事大主義를 배격하였듯이 정다산도 中國文化의 맹목적 崇拜를 반대하고 民族的 자주의 정신과 愛國主義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면 중국의 고사만을 사용하니 이 역시 비루한 문풍이다. 용당 ‘삼국사기’, ‘고려사’, ‘여지승람’, ‘연려실기술’ 기타 우리나라의 저작들서 그 고사를 채취하며 해당지방들의 현실을 연구하여야 한다.”

다산은 조선시대의 실학자와 공통된 사상을 지니면서도 특히 깊이 몰두한 것은 太極理論이었다고 북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世界의 근원을 太極으로 보며 태극은 물질적 기(氣)로 이해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태극이란 것은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의 혼돈한 것으로서 형체있는 것의 시초이다. 음양의 씨앗이요 만물의 시초이다> <후세의 이론이 태극을 높이 받들어 정신적인 물건을 만들고 매양 말하기를 이것은 리요 기가 아

나라느니 이것은 무이며 유가 아니라느니 한다>고 하여 그릇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³⁰⁾ 북한은 정다산이 이와 같이 太極을 物質的인 氣로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근원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나. 社會 政治 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북한에서의 다산에 대한 사회정치사상은 그의 <원정>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정>에 의하면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균시민(均市民)'이란 것이 政治的 原理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 하였다. 이 均民主義는 "차별과 천대와 부권력한 사회적 처지에서 신음 하면서 균등한 생활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편에서서 극히 정열적으로 부르짖는 것이라면 이는 혁명적 성격을 내포한 진보적 표어"라고 보고 있다.³¹⁾ 특히 다산은 <경세유표>조항 중에서 제9조의 '公田 公稅論'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사전 10결에 1결만 국가가 매수 하여 9결전의 농부들로 하여금 그것을 공동경작케 하여 1결 공전의 수확은 왕세, 즉 국세로 상납하고 9결 사전에는 세를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이른바 '조이불세(助而不稅)'란 것이다."라고 하여 經世論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 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산의 <호조겸 교론(戶曹兼 教論)>도 매우 참신한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옛날 주제(周制)에 대사도는(大司徒) 그직책이 교육을 전임하였으니 소위 '향삼물 교만민' 이 것이었는데 후세에는 호부가 재부를 전입하여 취렴(聚斂)을 직능으로 하므로 ...중략... 교화와 풍속이 모두 퇴패(頽敗)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²⁾하여 그 교화를 운용하는 기관인 정치적 조직 여하에 추인한 것이 확실히 다산의 경세가적 타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산의 정치사상

30) 정진석외 2인, 앞의 책, pp.54-55.

31) 최익한, 앞의 책, p.316.

도 民權 民主主義 思想임을 강조 하고 있는데 <원목>, <탁론>을 인용하면서 매우 긍정적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民權과 반대되는 王權의 잔악상을 폭로 하고 목(牧)의 成立過程을 인민생활의 필요와 人間 全體의 선택 및 약속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수령의 지위를 고론(考論)하면서 탐관오리의 현행죄악을 지적하며 목도(牧道)에 위반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통치자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牧爲民有)이라고 결론 하였으니 그의 본의는 광의의 목 즉, 군주를 우두머리로 한 지배계급 전체를 비판 규탄한 것이다.”³³⁾라고 하여 다산의 민권 사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茶山은 또한 그시대의 人民 들의 政治的 동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조세와 부역이 무겁고도 번잡하며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은 나라를 믿고 살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전부 亂(亂)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요언망설이 동에서도 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법에 비추어 처단하면 한사람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³⁴⁾

이처럼 북한에서는 다산의 계급적 인식에 근거하여 항상 인민의 편에 서서 위정자의 비리를 폭로 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했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다산은 실학의 巨匠들인 류반계, 이성호 등의 저작을 소년시대부터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사상을 繼承 발전 시켰다. 특히 苦難에 찬 18년간의 강진류배시기에는 전라도 지방의 農民大衆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착취와 억압과 빈궁에 헤매는 그들의 고통과 불평을 몸소 體驗하였다. 그 참담한 현실을 심각히 洞察하고 그 복잡하고 掩蔽되어 있는 당시의 封建的인 착취기구의 이면들과 그 심각한 모순을 실학자의 입장에서 예리하게 비판 폭로 하였다는 것이다.

32) 앞의 책, p.322.

33) 앞의 책, p.337.

34) 정진석의 2인, 앞의 책, pp.75-67.

다산은 非現實的이며 낱아 빠진 유교 이론을 실학적 입장에서 분석 비판 하였으며 原始 儒敎의 唯物論的 요소를 섭취하여 그에 새로운 해석을 줌으로써 당시 사회 발전에 服務 시키려고 노력 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 宗敎 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이조말기의 유학의 황폐한 시기에 天主教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북한에서 정다산의 천주교에 대한 시각은 매우 階級的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는 노예소유자적 로마의 붕괴기에 있어서 노예와 주인, 유산자의 무산자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조건 하에서 노예 빈민 피압박자 불행한 평민의 종교로서 발생했으므로 거기에는 노예와 빈민들의 혁명적 동기와 주인 및 부자들에게 대한 증오가 내포되어 있었다.”³⁵⁾고 계급 투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역사 이래로 착취계급은 기독교로부터 반란적 반노예소유자적 요인을 몰아내고 거기에다 자기들에 유리한 원칙(순종 온순 등)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될 수 있는대로 교황의 전제(專制)와 교회의 폐습을 숨기고 달콤한 말로 인민들을 꾀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천주학’으로 불리는 이 기독교는 기존의 유교사상에 의해 강조되어 온 제사를 폐지함으로써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통치 계급은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정하고 천주교도들을 ‘배조패륜(背祖悖倫)’의 역도로 박해하기 시작 했다고 보고있다. 정다산도 이런 천주교의 폐단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산의 교육 사상은 다른 실학사상가들의 교육관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다. 實學 思想家 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 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敎育敎養 사업에서의 弊端과 缺陷을 예리하게 분석 비판

35) 최익한, 앞의 책, p.207.

하였으며 교육교양 사업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옳게 제시 하였다는 것이다. 실학자의 교육교양사업은 정다산에 의하여 더욱 심화 발전 되었으며 양반 통치계급들의 敎育文化 政策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하였다고 한다.

다산은 유학자들이 내놓은 <생지(生知)><학지(學知)><곤학(困學)><곤이불학(困而不學)>에 대한 해석을 '유년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 유년시기에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중년에 이르러서야 배우려고 분발한 자'라고 규정하였다고 한다. 다산은 주자학자들이 "인성론을 통하여 인간의 선천적 기질에 의하여 숙명적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하여 봉건적인 몽매정책을 정당화하고 계급적 대립을 합리화"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했다고 강조 하고 있다.³⁶⁾

북한에서는 다산이 당시의 교육 목적과 그 내용이 유교의 사상명분에 의한 번문육례(繁文縟禮)에만 치우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다산은 진정한 학문을 '道를 알고 자기를 인식하여 실천 하는데 힘쓰라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공리공론에 떨어진 학문을 비판하고 科學的 知識과 技術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의 주된 內容으로 할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다산의 道德 敎養에 대한 연구도 "다산은 支配階級의 道德的 說敎를 비판하고 兩班 통치배들의 위선적인 폐덕상을 폭로하고 변쇄한 도덕교양에 의하여 실학의 척도에서 비판했다."³⁷⁾고 하여 진보적인 교육사상가이며 민주주의적 교육학자로서 활동한 先驅者의 한사람으로 연구되고 있다.

(2) 第2期(1960-70년대)

가.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북한의 정다산에 대한 철학사상연구는 觀念論的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36) 과학원 철학 연구소, 앞의 책, p.218.

37) 앞의 책, pp.222-223.

이를 입증할 만한 연구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정약용의 철학사상은 그 전체체계에서 유교 관념론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날 실학자들이 ... 중략... 소유한 학문은 주로 옛날 중국 사람들의 철학리론에서 나온 것이며 그 자체가 유물론적이 못되고 많은 경우에 관념론 적이었다.정약용의 자연관에는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이 혼합되어 체계성없이 로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약용의 철학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관념론이었다.”³⁸⁾

사례2)

“정약용도 당시 철학사상의 기본 문제로 논쟁이 된 리, 기문제에서 해답을 주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이 문제의 견해에서 그는 주자학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론에 머물렀다.그는 이 논쟁에 대하여 리황의 주리론이나 리익의 주기론이 다 옳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산은 기라는 견해에서 세계의 시원이 물질적인 기라는 것을 시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 기의 견해에서는 리가 선차적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이익의 4단 7정론에다가 리기의 문제를 부여하여 ‘천하의 사물은 발현되기 전에 리가 있으나 발현 될 때에는 기가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였다.”³⁹⁾

그의 리선기후(理先 氣後)의 견해는 <물곡이 론한바 리, 기는 천지만물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리는 무형의 것이며 사물이 그렇게 되는 원인이며 기는 유형의 것이며 사물의 형체, 형질이다. ... 중략 ... 형질이 없다면 비록 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발동하겠는가? 따라서 발현 되기 전에 비록 먼저 리가 있다고 하여 방금 발현 될때에는 기가 반드시 먼저이다. 물곡이 말은 이래서 옳다.> 라고 하여 理를 強調 하는 觀念論者로 못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인식론 연구에서도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솔한다.>하여 그 심을 기로 리해하는 견해를 반대하였다”⁴⁰⁾하여 다산의 思惟 認識 能力이 물질적인 기와 관련이 없는 先天的인 것이라는 觀念論的 시각이 짙게 배어 있다. 물론 다산의 唯物論的, 實踐的 입장을 다 무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의 道德

38) 정성철, 앞의 책, p.401

39) 앞의 책, pp.404-406.

40) 앞의 책, p.411.

論 평가에서는 “<그가 도덕 인식에서 실천 행동을 중시했으며 도덕 규범이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초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하여 인의 예지(仁義 禮智)는 실천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⁴¹⁾

북한에서의 이시기의 다산 哲學研究는 “다산은 觀念論的 시각을 면할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산의 認識論的 견해는 사회 도덕 실천과 결부되어 封建的 정치 도덕적인 제관계를 合理化 하는 이론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나. 社會政治 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정다산의 사회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階級性, 人民性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교시가 내려 진다.

“지금까지의 역사학자 들을 비롯한 우리 학자들이 옛날책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너무 과장하여 써놓았습니다. 특히 실학파 들이 내놓은 이론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 평가 하였 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학파들이 역할을 무시해 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지난날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무주의 입니다.”⁴²⁾

실학파 평가와 관련된 이 敎示는 복잡한 내용을 담은 정다산의 社會 政治思想을 평가 하는 데서 확고히 의거 해야할 강력한 지침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서정다산 연구의 방향을 알수 있다.

정다산의 정치사상은 <王道政治> <德治> <인정(人政)>으로 불리운 정치의 이상이였다. 특히 그는 자기의 정치이상이 古代에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순 시대나 주나라 때라는 것을 論證하려 했다는 것이다.

41) 앞의 책, p.413.

42) 앞의 책, p.431에서 재인용

그는 도덕 정치의 규범으로 <주례(周禮)>를 이상화하고 토지 제도로는 이미 요순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한 <井田制>를 이상화 하였고 기타제도도 역시 요순 시대를 이상화한 근거는 바로 주나라가 법치가 아닌 예치(禮治)가 완성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³⁾

정치의 根本理念에서 <왕도> <예치>주의적 정치를 이상화한 정다산은 사회 역사를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자기 발전의 완성이므로 보고 그후의 역사를 퇴보 그것도 帝王의 의사에 의한 變遷으로 본것은 물론 形而上學的이며 觀念的인 관점에 근거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즉, “그가 <리상>한 <왕도 정치>는 아무리 리상적으로 개작 하였다 해도 결국은 토지에 대한 봉건적인 공전제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사적지주는 없으나 봉건국가와 농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선량한>관리들로 조직된 통치 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봉건사회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 실제로 그가 설계한 이상사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다”⁴⁴⁾고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정다산 연구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평가를 절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약용의 반동적 봉건 통치자들에게 대한 비판은 봉건적 사적 지주적 토지소유제도 당시의 부패한 양반제도, 반동적 통치자에 직접적인 폭로 었는 바 그것은 객관적으로 피착취 대중의 피해 관계와 일치되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약용의 사회 정치사상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진보적이었다”⁴⁵⁾고 하면서도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개량적이었으며 봉건적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다산의 한계성을 항상 지적 하고 있다.

43) 앞의 책, pp.433-434.

44) 앞의 책, pp.437-438.

45) 앞의 책, pp.443-444.

다. 宗教 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정다산의 宗教에 관한 연구는 “자연관에서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종교 미신에 대하여 불철저한 립장에 섰으며 유교의 <상제>관념을 부인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제>의 존재는 궁전의 권력있는 왕이나 학문하는 사람이나 두려움이 대상이므로 행동을 삼가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면서도 <상제>이론은 왕의 지위를 合理化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상제는 유일무이 하다는 것을 론술 하면서 상제가 유일무이 하지 않고 다섯도 여섯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나라에 왕이 하나가 아니라 다섯도 여섯도 있다는 견해와 같은 것이니 용서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요망한 사람이 변방의 먼구석에서 불순한 설을 고창하여 말하기를 국왕은 한 사람에 멈추지 않는다. … 중략 … 조정에서 법을 장악한 신하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죄를 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⁴⁶⁾하여 여유당 전서를 인용하면서 정다산의 <상제>이론은 결국 왕권의 절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연구되는 정다산의 敎育사상도 관념론적이었을 뿐 아니라 封建 儒敎 道德敎育을 강조 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봉건 유교 도덕으로서의 孝, 悌, 慈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孝, 悌, 慈의 봉건 도덕적 규범이 가부장적 종법제 원칙(家父長的 宗法制 原則)에 의하여 구성된 봉건 통치체제를 합리화 하기위한 도덕이라는 것을 다산도 지지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忠, 孝 思想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봉건양반계급 질서를 합리화 하는데 복무 했다고 보고 있다.

46) 정성철(1974), <실학파의 정치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p.427.

(3) 第3期 (1980년대후)

가.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북한에서의 정다산 연구는 후기 實學派의 대표자로 연구되고 있다. 그는 進步的 양반의 입장에서 부패타락한 봉건 통치배들의 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 哲學, 政治, 經濟, 文化, 科學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당시로서는 일정하게 진보적인 견해들을 폈다고 보고있다.

정다산은 <理><氣>의 호상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의 유학자들의<理先後氣><理發氣隨>의 觀念論的 견해를 부정하면서 '기가 근본이며, 리는 거기에 붙어 다니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정하였다는 것이다.

정다산은 사물의 부단한 변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변화, 그것은 자연계의 사물자체의 고유한 법칙으로서 원래 모든 사물은 오래 되면 낡고 붕괴되고 폐해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새것으로 變遷되어야 한다. 때문에 한 시각이라도 정지하는일이 있다면 벌써 그것은 하늘과 땅의 아니며 자연으로 될수없다>라고 하여 자연계의 변화 현상 처럼 사회 현상도 부단히 변혁 되어야 함을 주장 했다는 것이다.⁴⁷⁾

이처럼 모든 만물은 어떤 운동 법칙에 의하여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유물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산은 사물의 生成變化는 서로 성질이 다른 물건들의 結合과 격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정다산에 대한 연구는 辨證法的인 사상요소도 많았지만 유교적 관점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47) 최봉익, 앞의 책, pp.258- 259.

“그는 음양이 작용하는 리치우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이 있으며 <태극>우에 분명히 조화의 근본이 있다고 함으로써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⁴⁸⁾

이러한 唯物論的 견해도 根本的으로는 天命思想에 의한 해석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러한 정다산 世界觀의 제한성을 여러 군데에서 지적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연구 기록들을 보면

“정다산은 인식론의 이러한 유물론적이며 합리적인 요소들을 적지않게 제기 하였으나 그의 인식론에는 <천명>을 개입시킴으로써 관념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⁴⁹⁾

“총체적으로 정다산은 비교적 진보적이며 유물론적인 견해들을 내용으로서 선행 사상에 비하여 한걸음 더 전진한 측면들이 있으나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도 가지고 있었다.”⁵⁰⁾

정다산의 실학에 대한 철학적 견해도 ‘주자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북학파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연구,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학문’ 이라고 인정하여 선진기술을 배울것을 적극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고대 경전들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 고증하면서 자기의 실학적 이해를 성현의 뜻으로 대치시키는 독창적 학풍을 세웠다. 그는 선조들의 큰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구호밑에 옛 성현들의 권위를 빌어 경전의 기본정신을 자기의 사회 정치개혁 이론과 결부 시켰다. 이것은 현실적인 모 든것에 대한 비판의 합법칙성을 부여 하기 위한 좋은 방패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앞의 책, p.259.

49) 앞의 책, p.260.

50) 앞의 책, p.261.

그러면서도 觀念論的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약용의 우주생성의 출발적 범주를 주자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태극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에 있어서 태극 주자 성리학에서와 같이 정신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적 실체였다.”⁵¹⁾고 강조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처럼 그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唯物論과 觀念論의 요소가 다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 社會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의 丁茶山의 社會 政治思想은 土地問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정다산의 <閭田法>은 당시의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독점과 수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主唱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산은 “다른 성리학자들이 제시한 <균전법><한전법>등은 농사하는 사람이나 농사안하는 사람이나 다 가지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⁵²⁾고 하여 새로운 토지제도인 여전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다산이 제기한 <閭田制>란 自然 地形 條件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30호 단위를 한개 마을로 만들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내땅 네땅 구별없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남는 것은 매 사람이 일한 날자에 따라 穀物을 分配하게 하는 것이다

즉, 여전법은 “당시 봉건 지주들이 태반의 토지를 소유하고 정권을 틀어쥐고 있던 조건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인 것이었으나 여기에는 봉건 토지 소유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이 들어 있었다”⁵³⁾고 하여 당시로써는 革命的이라고 할 제안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다산의 사회 정치 개혁사상의 기초가 그의 사회 歷史觀에서 비롯되었

51) 정성철(1987), <조선 철학사Ⅱ>, pp.460-461.

52) 앞의 책, p.264.

53) 앞의 책, p.264.

다고 한다. 그는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이상적인 사회, 국가로 발전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즉, 인류는 태고 시대의 무리 생활로부터 社會的 분쟁의 조절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추대하고 法을 만들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때에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했고, '법은 백성에게 편리'한 것이었다고 하는 民權思想도 지니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다산은 均民 思想과 民主主義 思想을 정치이념으로 하여 <경세유표> <흙흙심서> <진론> <민보의> 등을 통하여 봉건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改革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시 兩班의 제한성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농민의 이해 관계를 다분히 반영 하면서도 국왕이나 봉건국가 자체가 최대의 봉건 지주 였거나 그 이익을 옹호 하는 지배 권력 기구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 수도 없었다. 여기로 부터 그가 이상한 여전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토지제 공유제 원칙에 기초하여 중간의 사적 지주의 착취를 없애고 국가가 직접 농민에 대한 착취를 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었다.”⁵⁴⁾고 하여 정다산의 강조한 여전제를 空想的, 封建的 성격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 宗教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이 시기에 정다산의 宗教觀 연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근원을 '봉건 사회에서 봉건적 지배와 착취 관계를 超自然的인 힘을 빌어 유지하려는 統治階級の 종교 장려 정책과 사람들의 自主意識과 創造的 능력의 제한성,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고 있다.⁵⁵⁾

또한, 朱子學的 儒教 觀念論者들이 강조해온 <陰陽 五行說>도 비과학적 이

54) 앞의 책, pp.501-502.

55) 정성철(1987), <조선 철학사Ⅱ>, pp.474-475.

라고 했다.

그는 <주자가 하늘이 음양 오행으로 만물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陰陽이란 말은 원래 해가 비치는 곳과 해빛이 가리워지는 곳을 각각 가리키는 데서 나온 말로서 거기에는 다만 밝고 어두운 차별이 있을 뿐이고 원래 체질이 없는데 그것이 어찌 만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五行이란 것은 만물 가운데서 다섯가지 물건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찌 만물의 어머니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원래 사물의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견해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⁵⁶⁾

또한, 茶山이 天主教에 관여한 것은 그의 가정, 친척, 선배들의 영향과, 청년 시기의 실학에 대한 열의 때문이었다고 한다. 科學과 宗教를 분리시키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천주교를 신봉했지만 그의 世界觀의 성숙됨에 따라 天主教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다. 특히 達善은 1791년 진산사변때 상소문을 통하여 천주교와 완전한 단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그리고 朴한은 達善의 倫理 道德的 견해도 封建的이었다는 것이다. 도덕규범 자체가 양반계급의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로 본다는 것이다.

孝 悌 慈의 道德規範을 중시하면서도 階級性을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상 계급 사회에서 계급을 초월한 인간도 없었으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지 않은 초계급적인 사상도 없었다. 정약용의 윤리 도덕적 견해도 여기에서 예외일수 없다”⁵⁸⁾고 하여 達善의 孝 弟 慈사상도 결국은 자신의 양반 계급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지배를 合理化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56) 최봉익(1986), <조선 철학사 개요>, p.258.

57) 정성철(1987), 위의 책, p.454.

58) 위의 책, p.480.

IV. 丁茶山에 대한 評價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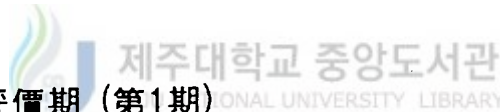
지금까지 北韓 學界에서 정 다산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기 위하여 북한에서 간행된 實學 및 정다산 관련 著作을 時期別로 나누어서 고찰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통하여 다산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는 해방후 부터 主體思想 정립 까지로 이때에 정다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唯物史觀에 적용시킨 평가였다.

제2기는 1969년 김일성 교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가 발표되고 1955년부터 시작된 주체사상의 정립됨에 따른 주체사관에 의한 평가였다.

그리고 제3기는 1980년 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批判과 國內外的 環境 變化에 따른 주체사상의 部分的 수정에 근거한 평가시기이다. 이때는 정 다산의 긍정적 평가가 재해석 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



1. 唯物論的 評價期 (第1期)

이 시기는 북한 정권 수립후 1950년대 말까지로 볼 수 있는데 정다산과 관련된 북한의 연구는 <실학파와 정다산(최익한,1955)>, <조선 철학사, 상(정진석 외 2인,1960)>,<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과학원 철학 연구소,1962)> 등을 들 수 있다.

1948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역사 연구는 1952. 12. 15일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보고를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는 사상사업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근절하며 사상적 오류를 묵과 하려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 각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중략) … 우리에게서 우리나라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한 이론 저서들이나 논문들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사상사업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엄중한 결함입니다.”⁵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思想事業의 강화와 맑스-레닌주의적 해석에 의한 역사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선조들이 써놓은 역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맑스-레닌적 견지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다산에 대해 體系的 정리를 하여 출판된 것이 <실학파와 정다산>이다.

이 책은 그 서문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사상적 전통을 이해 천명하기 위한 한개의 고리로서 쓰고 있다”⁶⁰⁾고 執筆 動機를 밝히고 있다.

著者 崔익한은 研究 目的이 정다산이라는 한 인물의 연구에 있지 않고 이시기의 시대적 산물으로써 實學을 체계화 하고 그 가운데 한 개인을 위치 지우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상하편으로 構成되었는데 상편은 “실학파의 사적(史的)발전”을 하편은 “실학의 대성자 정다산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쓰고 있다.

상편에서, 실학이란 “단순히 실행이나 실증학이란 것보다도 민생과 사회에 실리와 실용성이 있는 학문 즉, 경세학(經世學)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¹⁾고 전제하면서 실학이 社會的 環境의 產物이란 관점에서 당시의 사회 환경을 분석 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階級矛盾, 黨派矛盾, 地方的 對立, 사상적 모순이 對外的으로는 東洋 封建主義 대 西洋 資本主義의 矛盾이 혼재 하

59) 동아일보사(1989.1.),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별책부록, pp.103-104.

60) 최익한, 앞의 책, p.9.

61) 위의 책, p.22.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다산과 관련된 하편의 내용구성은 4부로 나누고 있는데 하편의 머리말에서 “우리민족의 문화적 사상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 실학자의 대표자인 정다산의 사상 및 학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적사업의 하나”⁶²⁾라고 하여 다산은 실학자의 대표로써 많은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높게 평가 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다산의 사상가적 경력에 대한 사회적 概觀을 하였다. 여기서 다산에 영향을 준 인물이 주로 남인 성호 學派들이었으며 학문적으로는 성호와 반계를 이어 받았다고 밝혔다.⁶³⁾

제2부에서는 다산의 철학적 제 견해를 소개 했는데 天文, 地理, 科學, 技術, 醫學의 수준이 높았으며 儒教敬意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등 유학 개혁사상을 지녔고, 인식과 비판에 있어서 유물론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산은 인성론에 있어서 인의예지의 선천적 범주를 부정하고 후천적인 실천교양을 고조하며 또 기질의 선천적 차별이 실천에 대하여 결정적 요소가 아니란 것을 지적하여 칸트가 말한 바 정언적 명령에 전제하는 절대적 초경험적인 도덕원리와 같은 것을 허용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⁶⁴⁾라고 하여 관념론적이거나 초월적인 인식을 부정한 철저한 유물론자로 평가하고 있다.

제3부는 다산의 정치 경제 사상을 다루고 있다. 다산의 정치 사상은 均民主義, 門閥 階級 및 지방차별제의 타파, 民權主義 사상등으로 혁명적 민주사상이라고 해석하였다.⁶⁵⁾

그리고 경제 사상은 重農主義 로서 당시 가장 큰 농민 문제였던 환곡의 폐

62) 위의 책, p.167.

63) 위의 책, pp.193-194.에서 소개. <소설목민심서>(황인경,삼진기획,1992) 전5권에
도 다산의 학문적 배경, 학파등이 상세히 전개됨.

64) 위의 책, p.295.

65) 위의 책, p. x iii

지, 지세의 지주 부담, 공전 균세를 제시하였고 나아가 농민 문제의 최종적 해결안으로서 여전제라는 土地國有에 의한 민주주의적 토지 분배를 지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다산의 실학을 綜合하여 철학, 경제 정치사상, 애국사상, 민족 문화 운동 등의 순으로 재정리 하고 있다.

위와같은 일련의 내용에서 다산을 民主主義的 反封建 사상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물사관에 의하여 다산의 계급적 혁명적 사상가로서 활동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조선 철학사(상)>에서도 나타난다.

이 책은 8편으로 나누어 각 시대의 철학 사상을 담고 있는데, 역사의 흐름을 唯物論과 觀念論과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二分法의 도식을 정하고 있다.

즉, 왕 지주등의 지배계급은 관념론을 농민 농노 등 피지배계급은 유물론을 담지한 계급으로 전제하고 歷史의 흐름과 그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실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선진 실학 사상은 부국 강병을 염원한 진보적 양반들과 농민, 도시 평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나라 철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물론 전통과 무신론 사상을 계승하여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⁶⁾

특히 丁茶山의 學問 目的을 기술하면서 “국가와 민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주자학을 배우면 은일(隱逸) 산림(山林)으로 차처하고 산으로 들어가 무위(無爲)로 나가는 데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하였다”고 하여 여유당 전집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하고 있다.⁶⁷⁾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다산 정약용>은 이시기에 정다산에 대한 綜合的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66) 정진석외 2인, 앞의 책, p.254.

67) 앞의 책, p.237.

“정약용의 빛나는 생애와 선진사상과 학문적 업적들은 지난 시기 일본 제국 주의식민주의자들과 반동학자들에 의하여 왜곡 말살되었으며 오늘날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그 선진성과 과학성이 란폭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하여 정다산에 대한 日本 植民 史觀式 또는 남조선식 평가에서 벗어 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석형이 쓴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에서는 다산의 영특한 자질이 큰 힘을 발휘하여 반대파의 모략속에서도 진리를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실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의 天才의이며 革命的인 탁견이 여전제를 비롯한 진보적 사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정진석도 “다산 정약용의 철학 사상”에서 그의 철학 사상이 다소 계급적 이론적 제한성이 있으나 유물론적 견해와 진보적 사회 정치적 견해는 봉건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농민 투쟁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사회 발전에서 生産力의 발전이 미치는 주요한 역할에 착안한 진보적 사상가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⁸⁾

과학원 후보원사(1962년 당시) 김광진은 다산의 社會 經濟思想에 대해 평가하면서 다산은 비현실적이며 낡아빠진 儒敎理論을 실학적 입장에서 분석비판 하였으며 원시유교의 唯物論的 요소를 攝取하여 당시 사회발전에 기여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⁶⁹⁾

특히 정학모의 ‘조선어 연구’ 논문을 수록하여 다산이 인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우리말 연구에도 몰두 했다고 極讚하고 있다. 漢文이 갖는 難解한 사용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 定立에 노력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곧 다산이 人民에 대한 사랑의 發露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68) 김영수(1989), “북한의실학연구 실태:주요저작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제1권 4호), p.218.

69) 과학원철학연구소(1962),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다산 정약용>(서울:푸른 숲,1989), pp.77-78.

2. 主體 史觀에 의한 評價期 (第2期)

이 시기는 주체사상의 體系化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즉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등장하는데 自主性을 핵심개념으로 하면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보다는 주체사상의 獨創性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특히 김일성은 1969년 7월 “사회 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敎示를 통하여 실학파와 그들의 주장한 제 견해를 주체적 입장에서 바르게 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을 비롯한 우리학자들이 옛날 책에 대하여 평가 한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너무 과장하여 써놓았습니다. 특히 실학파들이 내놓은 이론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 평가 하였습니다.”⁷⁰⁾

이에 따라 북한 역사 학계에서는 實學派의 역사적 위치와 역할, 계급적 기초와 思想的 本質, 그리고 그 進歩性과 制限性에 대하여 새로운 研究가 시작되었다.

北韓의 <정치사전>에서 실학에 대한 評價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실학파의 존재도 귀중하며 좋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실학파가 그당시 봉건사회에서 일정한 진보적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까지와서 무슨 큰 의의가 있는 것처럼 볼수는 없다고 가르치시었다.”⁷¹⁾고 하여 오늘의 현실에서는 消極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정다산에 대한 評價는 <경제사전(사회 과학원 경제연구소,1970)> 및 <력사사전(사회 과학원 역사 연구소,1971)>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사전의 ‘경제유표’ 항목에 보면 다산의 근본 입장과 기본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

70) 김영수(1989.5.), “북한의 다산연구 시각에 대한 평가”, <북한 사회주의 이념과 전개>, 서강대 동아 연구소, p.25에서 재인용.

71)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p.676.

지배계급의 입장이며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발기들도 담겨 있으나 국가 및 사회제도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여전히 봉건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다.⁷²⁾

북한의 <역사사전>의 '실학' 항목에서도 평가절하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실학은 당시로서는 進步的이었고 또 그후 開花思想과 愛國文化 개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사상적 본질은 대체로 中小土地所地 階層에 속하는 진보적 양반들이 낳고 反動化된 양반들을 반대하는 사상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다산에 대해서도 “정약용도 유학자였던 만큼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사상은 불철저한 것으로서, 여전제 실시를 주장한 근본 취지는 가혹한 착취를 다소 조절 함으로써 봉건 국가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는데 있으며, 노비 문제 및 농민 폭도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⁷³⁾고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형성에는 다산의 애국정신은 비록 좋은 것이었지만 결코 근로 인민대중을 진정으로 대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인민을 위한 나라'를 구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제1기의 다산에 대한 계급적이며 진보적인 평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시기의 정다산에 대한 否定的 評價는 <실학파의 철학 사상과 사회 정치적 견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著者は 이 책에서 “실학파 인물평가와 관련된 교시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 정치적 견해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지난시기 이분야에서 나왔던 편향들을 일정하게 시정극복하려고 시도 하였다.”고 執筆 目的을 밝힘으로써 실학파에 대한 입장이 변화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著者は “정다산은 '낡은 우리나라를 혁신하자'는 애국적 념원에서 출발

72) 김영수, 위의논문, p.25.

73) 위의 논문, p.26.

하여 나라의 제반 개혁안을 제시 했으나 당시 조건하에서 봉건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현존 제도를 '인정'의 요구에 맞게 개조한 봉건제도를 그렸을 따름이다."하여 다산의 限界性을 지적하고 있다.⁷⁴⁾

그는 특히 정다산의 哲學思想이 그 전체 체계에서 儒敎 觀念論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13-4년전의 著者가 共同執筆하여 쓴 <조선 철학사(상)1960>에서의 다산에 대한 평가를 번복하고 있다.

3. 肯定的 要素 再評價期 (第3期)

이 시기는 1980년대이후 현재까지로 볼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主體思想이 김정일에 의해 哲學的 原理, 社會歷史原理, 指導原則이 제시되면서 주체사상이 全一的 體系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즉, 지금까지의 정치적 논리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김일성 개인에 맞추어 해석해 왔던 역사인식을 주체사상이 제시하는 哲學的, 社會歷史原理에 맞게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다산에 대한 평가도 肯定的 否定的 兩 視覺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봉건사회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장 예리한 폭로자로 적극적인 개혁론자로 등장하였다. ... 중략 ... 토지에 대한 지주의 사적소유를 폐지할 것을 예견한 정약용의 '여전제'에 관한 사항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진보적 의의를 지닌다."⁷⁵⁾고 하여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과 사회적 제약성으로 인해 봉건적 토지소유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으며 농민들을 국가지주적 착취에서 해방시킬수 없었다."⁷⁶⁾고 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 시기의 정다산에 대한 評價를 분석 할수 있는 저작물은 <조선철학사 개

74) 정성철(1974),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 정치적 견해>, p.389.

7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85), <철학사전>(도서출판 힘,1988), pp.605-606.

76) 위의 책, p.606.

요(1986)>와 <조선 철학사Ⅱ> 등이 있다.

먼저 <조선철학사 개요>에 나타난 다산에 대한 評價를 보기로 하자.

저자는 副題를 “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 의 지양(止揚)”이라고 하여 집필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朝鮮 哲學史를 辨證的 시각으로 연구 되면서 이를 다산평가의 방법에도 적용하고 있다. 즉, 50년대의 긍정적 평가와 60-70년대의 부정적 평가가 止揚되어 80년대이후가 되면서는 부분적 긍정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는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계급적 립장에서 똑바로 알려 주어야 하며 민족 문화 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實學派의 사상을 封建主義 사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실학을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가던 초기 부패한 반동적 봉건 통치배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길로 나갈것을 지향한 진보적인 철학 사상조류”⁷⁷⁾라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 가고 있다.

정다산에 대한 평가도 이런 實學思想에 대한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하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같이 하여 客觀的으로 기술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한 다산의 견해는 모두 물질적 실체인 기(氣)를 근원으로 하여 발생되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시원과 형성에 대한 견해에서 다산의 유물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정다산의 觀念論的 입장이 ‘신의 존재를 합리화’하였다 하여 그 유물론적 철학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정다산에 대하여 비교적 進步的이며 唯物論的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선행연구에 비하여 한걸음 더 전진한 측

77) 최봉익, 앞의 책, p.234.

면들이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⁷⁸⁾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조선 철학사Ⅱ(1987)>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1801년부터의 18년간 유배생활과 그이후에 정다산은 이조 봉건 왕조의 예리한 비판폭로자로, 적극적인 개혁론자로 등장하였으며 방대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사상적 성숙성을 보여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⁷⁹⁾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인정, 선정 사상은 특히 그가 곡산부사로 있을 때 집중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관가의 파렴치한 착취행위를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 농민들의 우두머리인 이계심이란 사람이 ‘백성들의 고통 10여조에 대한 상소’를 가지고 자수한 데 대하여 체포 처벌대신에 후한 보상으로 뇌주었다”⁸⁰⁾고 하여 다산의 이런 혁명적 반봉건적 입장 때문에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항상 인신적인 박해를 가했다고 한다.

저자는 자기가 쓴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1974)>에서의 정다산 평가를 또다시 翻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몇년을 주기로 하여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史學界의 어려움이다.

즉, 정다산에 대해 너무 消極的이고 限界性만을 지적하다 보니 정다산이 이룩한 역사변화에 영향을 미친 진보적 측면을 밝힐 수 없는 곤란함을 피하기 위하여 김일성 교시후 부정적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비교적 客觀的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인 것 같다.⁸¹⁾

78) 위의 책, p.261.

79) 정성철(1987), <조선 철학사2>, (서울: 이성과 현실) p.454

80) 위의 책, pp.455-456.

81) 김영수(1989), “북한에서의 실학 연구 실태:주요저작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제1권 4호), p.227.

특히 주체사관이 철저히 반영된 <조선 전사>에서도 주체사관에 의한 현실 중심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주체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進歩性은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모든 상황에서 출현한 시대적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丁茶山 研究에 나타난 特徵과 問題點

지금까지 丁茶山 관련 著書를 中心으로 본 茶山에 대한 評價를 정리 해 보면 批判的인 中心으로 한 연구나 <정약용 탄생 논문집>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進歩的 唯物論的 견해를 지닌 思想家, 改革家로 비교적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사회과학의 임무'라는 敎示가 내려지고 주체사상이 체계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당시의 양반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계급적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하고,역사의 흐름을 모름으로써 끝내 시대적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한” 封建的 틀속의 觀念論者로 한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980년대 이후의 정다산 관련 서적들은 정다산에 대하여 肯定과 不定의 二重性에서 分析하고 있다. 즉, 제2기의 주체사상의 지나친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철학적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다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觀點이 變化된 原因이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政治理念의 變遷過程과 결부시킬 수 있겠다. 즉, 1952년 사상강화에서 시작하여 1969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 政治的 正統性의 理論的 틀에 맞추어 평가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初期에는 맑스-레닌주의자로 평가했다가 中期에는 개인적 理想鄉일뿐 人民大衆의 結集力을 키우지 못하여 그시대의 문제점 폭로 수준일뿐 實踐的이지 못하였다고 평가 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오면서 주체사상이 이론적 정립을 추구하면서 역사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가 歷史學徒들의 學問的 시각에 영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원인은 정다산에 대한 새로운 자료발굴과 觀點의 변화라 하겠다.

다산의 政治 經濟 哲學 自然科學 歷史 文學思想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부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觀點의 多樣性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 함으로써 一貫性없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土地問題만 하더라도 다산이 처한 상황과 思考의 質的 變化에 따라 閭田制, 井田制등으로 질적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시기의 정다산을 강조 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서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 끼리의 葛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다산연구의 최고 실력자인 최익한은 1960년대에 오면서는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의 茶山研究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는 <탄생 200주년논문집>에 研究論文 수록이 없고 정성철은 정다산 연구에 꾸준히 관여하면서 계속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政)-학(學) 유착>이 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北韓은 丁茶山 研究에 어떤 問題點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時期別로 본 정다산 연구는 초기에는 다산의 階級的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唯物論者 階級論者로서 당시 억압받는 민중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와 制度的 矛盾을 지적한 人民大衆의 代辯者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중기에 오면서는 階級性은 강했지만 人民性, 특히 大衆의 힘을 결집시킬 수 없는 한계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외침이요,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부터는 두입장을 합해서 다산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성으로 그 公正性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

고 있다.

둘째, 內容面에서는 가장 깊게 研究된 것이 經濟分野 중 農業 改革論에 관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다산의 農業 改革論은 크게 3단계로 연구되면서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1단계는 <농책><용지론>에서 보이는 農業論으로 다산은 農業 技術의 改良을 통하여 농업 生産力을 발전 시키고 重農的인 諸政策을 수행 함으로서 生産意慾을 고취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때는 다산은 政府 官吏로써 農業 問題를 사회 개혁 문제와 결부 시키지 않을 때다. 2단계는 <전론>에 보이는 여전제 구상이다. 북한 연구에서는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등 종래의 土地論은 모두 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社會 改革論을 강조 하고 있다.

3단계의 農業 改革論은 <경세유표>에서 제시된 토지론, 즉 <정전론><정전의>에 보이는 농업 개혁론으로서 共同農場이 아닌 無田 農民層의 獨立 自營化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급격하고 革新的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漸進的이고도 온전한 방법으로서 그 目的을 달성하는 것이었다.⁸²⁾

이것이 다산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한 농업 개혁론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북한은 여전제만을 강조한 채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의 정다산 연구에서 강조 하는 것은 다산사상의 <理想社會>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自主的이고 創造的인 제안이었던 <理想社會> 건설이 고대의 플라톤이 主唱한 이상국가나 중국의 요순 시대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당시의 朝鮮末期의 資本主義의 모순과 현재 북한이 가고자 하는 社會主義 완성인 '이상사회'와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듯이 이끌어 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82) 김영수(1989.5.), "북한의 다산연구에 대한평가", <북한의 사회주의이념과 전개> pp.27-28.

그러나 다산의 주장했던 '살기 좋은 사회' 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 되었으나 김일성 주체사관이 등장 하면서부터 역시 다산은 한계가 있었고 現在의 김일성의 '이상사회'는 인민대중의 결집된 노력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암암리에 강조하는 것 같다.

V. 結 論

본 논문은 북한에서의 정다산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북한에서 출판된 저작물들을 분석하여 고찰했다.

北韓의 정다산 연구는 정권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는데 연구의 시각이 자주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역사연구가 시작된 1945년 이후부터 1950년대말까지(제1기)는 다산을 유물론적 시각으로 연구하고, 社會改革者 唯物論者로 평가하고 있다.

1960-70년대(제2기)에 와서는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연구되어 다산을 觀念論者, 理想主義者로 평가하여 다산의 활동과 업적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후(제3기)부터는 다산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산에 대한 연구의 변화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북한이 우리의 역사를 보는 기준의 차이로서 북한은 역사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역사해석의 근거를 우선 階級性에 두고 있다. 즉,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계급적 인식이 계급투쟁으로 승화될 때 새로운 '사회주의'가 도래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인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人民性의 원리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인물도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입장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비판했느냐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進歩性의 원리이다. 이는 인민대중의 억압과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歷史解析의 원리가 政治理念과 맞물려서 정다산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제1기에서는 다산을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양반들의 착취를 신랄히 비판한 혁명가 투쟁가로 평가되었다. 즉, 맑스-레닌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인 1950년대의 다산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오면서는 主體思想이 북한의 統治理念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다산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나타난다. 다산은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한 정도이지 인민대중을 결집시키거나 封建制度를 타도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進歩的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다산은 자신이 양반출신이라는 제약성, 天理에 대한 관념적론적 인식등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는 다산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客觀的 입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다산의 唯物論的 입장이 재등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통치이념이 다시 맑스-레닌주의로 回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에 社會主義圈의 변화에 따른 對內外的 위기에 당면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 민족제일주의'⁸³⁾를 내세우며 새로운 변용을 시도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연구라는 비난을 최소화하고 주체사상이 이론적 철학적 원리를 재정립하면서 다산의 긍정적 요소를 재평가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國際的인 흐름이 理念보다는 實用的인 開放과 改革으로 바뀌고 있다.

그 동안 '우리식 삶'을 강조해온 北韓도 이런 時代的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開放이나 改革의 名分을 찾기 위해서는 歷史的 사실의 재해석 즉, 정다산의 實學的, 實用的, 改革的 側面을 내세우는 초기의 입장으로 다시 回歸할 것이 틀림없다.

83) 고영환(1989), <우리민족 제일주의론>(평양:평양출판사), p.4.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合理化 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正-反-합의 논리로 80년대 이후의 평가가 合法則性에 의한 肯定-否定的의 모두를 수용해서 다시 이것이 또다른 變化의 기초가 되는 正(正)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정다산에 대한 연구는 그 研究對象이나 內容에서 깊이 있게 다룬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唯物論的 입장에서 해석했느냐, 김일성의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해석했느냐 등 보는 시각만 달랐을 뿐이다. 즉, 북한의 政治理念인 主體思想이 定立되면서 다산의 進步的 人民的 속성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오면서 재해석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결국 論者는 북한의 정다산 관련 書籍에 흥미를 갖고 茶山研究의 觀點과 研究 變化 原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시도했지만 끝내는 北韓의 정치이념의 변화, 政治的 正當性, 김일성 개인의 권력기반의 확보를 위한 수단인 주체사상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인물에도 적용 되는지를 다른 인물 연구를 통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 대상이라 생각한다.



參考 文獻

< 單行本 >

0. 최익한(1955).<실학파와 정다산>(서울:청년사,1989)
0. 정진석·정성철·김창원 공저(1960).<조선철학사(상)>(서울:이성과 현실)
0. 과학원 철학 연구소(1962).<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다산 정약용>(서울 푸른숲,1989)
0. 과학원 경제 연구소(1970).<경제사전>(평양:사회 과학출판사)
0. 사회과학 출판사(1973).<정치사전>(평양:사회 과학원)
0. 정성철(1974).<실학파의 정치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서울:한마당,1989)
0. 사회 과학원 역사 연구소(1977).<조선통사(상)>(서울:오월,1988)
0. 사회 과학원 역사 연구소(1952).<조선통사(하)>(서울:오월,1989)
0. 사회 과학원 역사 연구소(1980).<조선전사>(서울:푸른숲,1988)
0. 최봉익(1986).<조선 철학사 개요>(서울:한마당,1989)
0. 정성철(1987).<조선철학사Ⅱ>(서울:이성과 현실,1988)
0. 김정배(1989).<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서울:울유문화사)
- 0.北韓 研究所(1987).<朝鮮史 批判>
0. 정종욱·도진순외(1989).<南北韓歷史認識比較講義(근현대편)>(서울:일송정)
0. 안병우·도진순(1990).<北韓의 韓國史 認識Ⅱ>(서울: 한길사)
0. 사회 과학원 역사 연구소(1988).<조선 근대 혁명운동사>(서울:한마당)
0. 남현우(1988).<항일 무장 투쟁사>(서울:대동)
0. 金甲喆·高性俊(1988).<主體思想과 北韓 社會主義>(서울:문우사)
0. 東亞日報社(1989.1.).<원자료로 본 '北韓'>

- 0. 고영환(1989).<우리 민족제일주의론> (평양:평양출판사)
- 0. 편집부 엮음(1988).<조선 철학사 연구>(광주:도서출판 광주)
- 0. 姜萬吉의 역(1983).<韓國의 實學思想> (서울:삼성출판사)
- 0.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1982).<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법문사)
- 0. 極東問題研究所(1980).<北韓全書>
- 0. 사회 과학원 철학 연구소(1985).<철학사전>(서울:도서출판 힘 1988)
- 0. 李鉉淙(1983).<韓國의 歷史>(서울:대왕사)

< 論文 >

- 0. 金英秀(1989),“北韓에서의 實學 研究 實態:主要 著作을 中心으로”,<통일문제 연구>(제1권 4호),국토 통일원.
- 0. _____(1989.5.),“北韓의 茶山 研究 視覺에 대한 評價”,<북한 사회주의 이념과 전개>(제7차통일문제연구세미나), 서강대동아연구소.
- 0. _____(1991),“北韓의 政治文化:主體文化와 傳統政治文化”,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0. _____(1989.9.),“主體思想이 歷史解析의 基準”,<제대신문>(제369, 370호)
- 0. _____(1993.11.),“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특성과 변화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을 중심으로-”,울산대학교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 0. 조동걸외 3인(1988),“北韓에서는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보는가?”,<역사비평><(계간3호),역사 문제 연구소
- 0. 金智勇(1989),“다산의 文學에 대한 북한의 시각”,<북한>(통권213호),북한연구소
- 0. 殷千基(1988),“轉換器 北韓 연구의 시각과 方法論 考察”<북한>(통권 200호),북한연구소
- 0. 高性俊(1988),“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研究”,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0. 趙炳容(1988),“北韓의 政治 社會化에 관한 研究”<국민윤리 연구>(제27호)
한국국민윤리학회
0. 梁好民(1989),“政治: 全體主義 1인 獨裁의 確立”<북한40년>,울유문화사
0. 金抗燮(1984),“정약용의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民의 개념에 관한 고찰”,전남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0. 朴忠錫(1990),“실학사상에서의 民主主義”<한국사상의 심층 연구>(서울:도
서출판 우석)
0. 李榮燾(1990),“정약용의 井田制論의 構造와 歷史的 意義”<제4회동양학 국
제 학술회의 논문집>,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0. 趙 珖(1976),“정약용의 民權意識 研究”<아세아 연구(제56호)>,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소
0. 丁在聲(1987),“茶山 정약용의 정치사상 연구:‘民權’을 중심으로”,경희대학
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0. 高性俊(1989),“주체사상의 本質과 機能”<통일문제연구(여름호)> (서울:국
토통일원)
0. 배병삼(1993),“정다산의 ‘정치’에 관한 인식”.<한국정치학회보>제27집 1호
0. 박충석(1987),“다산학에 있어서의 정치적 사유의 특징”<다산 학보>(9집),
다산학 연구원
0. 유초하(1991),“정약용 철학의 과학지향과 그 한계”,<과학과 철학>(2집)
0. 조성을(1992),“정약용의 정치경제 개혁사상 연구”,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s Evaluation of Chung Ta-san

Kim, Yong-Cha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consistency in North Korea's evaluation of Chung Ta-san (Chung Yak-yong, 1762-1836). Also this study reminds us that either the change of political ideology or personal instructions of Kim, Il-sung has influenced upon the inconsistent evaluation of Chung Ta-san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since August 15 liberation.

1. The times between August 15 liberation and the end of 1950s: The evaluation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considered Chung Ta-san as a very progressive and reform-minded man of thought who was best applied to the principles of North Korea'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3.

historical consciousness based on class consciousness, the public's consciousness and the progressive consciousness. So Ta-san was considered as a typical philosopher of the "Sirhak-pa"(the pragmatic school) who pointed out the systematic contradictions of Yi-dynasty's feudal society and presented out the ideal form of society.

2. The times from 1960s to 1970s: The brand new political ideology called "Juche" idea appeared on this historical stage.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was made not by Marxism-Leninism but by "Juche" idea.

So it was said that Ta-san could not overcome the limits of his idealism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f aristocracy, confucianism and the times itself. It was also said that the Utopia of Chung Ta-san was just like that of Saint-Simon because he could not intensify the solidarity of the public and not strengthen the real practice of his envisioned social reform.

3. Ever since the times of 1980s:

After "Juche" idea was established since 1980s,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got more and more positive than ever before. That is to say, the public of North Korea have reflected that they downgraded his accomplishments only by pointing out the limits of Ta-san's idealism excessively.

Therefore, those three different historical stages shows us that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in North Korea has been made by dialectical logic. Namely, the first period evaluation in 1950s can be related to "Geong"(positiveness), the second ones in 1960s-1970s related to "Pan"(negativeness) and the third ones ever since 1980s related to "Hap"(grand total). Especially, the third period evalu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a form of "Geong"(positiveness) that can justify North Korea's eagerness to join the global current of the times based on openness and reform.

Finally, this study shows us that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lacks in consistency because the political ideology, situation or personal teachings of Kim Il-sung has influenced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In the end, this study on Ta-san's evaluation in North Korea reminds us that both the evaluation of Chung Ta-san and the historical study itself in North Korea has been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justification.